

오직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

「국립공원협회」 캠페인 (6)

자연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모범생 기업을 적극 밀어주자

자연환경과의 멋진조화...생기있는 안락한 주택
통나무집 전문업체 『올림픽 통나무주택』의 남다른 포부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각종 레저 휴양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사람도 자연을 찾아 휴양하기 마련이고 해마다 전국 국립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훼손된 자연과 낙후된 주택에는 눈살을 찌푸리기 마련이다.

여기 국립공원 지역에 최초로 통나무주택을

지은 기업이 있다. “올림픽 통나무 주택”이다. 자연과 통나무 주택의 조화는 거의 환상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통나무업체 중에 가장 완숙한 노하우를 갖고 7년 동안의 실제사업 경험으로 완벽한 집을 지을수 있는 이 건축회사는 전국에 통나무 주택을 많이 보급함으로써 해서 자연 훼손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남다른 포부에 부풀어 있다.

듣기만 하여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심산유곡 덕유산 계곡, 무주 구천동에서 건축을 활발히 하고 있다. 자연의 생명감을 만끽할 수 있는 통나무 집에서 우주 자연의 기(氣)와 상통하는 것이 현대판 신선(神仙) 아니냐는 것이 창업자인 정준학(鄭俊學) 사장의 진지한 주장이다.

무주에 자리잡은 것은 우리나라 굴지의 피서지 일 뿐 아니라 동계 올림픽 및 97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이기도 한 이곳에 자연과 어울어지는 건축물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국토 사랑과 맥을 같이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림픽 통나무 주택은 가장 원천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모습이다. 예를 들어 집은 인간에게 휴식과 평화와 안정을 주는 공간이라야

하는데도. 현대식 주거 공간은 사무실의 연장과도같은 분위기를 주는 지극히 타산적이며 인위적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은 자연을 그리워하며 정형화된 지금의 삶의 방식이나 틀에서 벗어나려는 꿈을 갖고 살게 된다.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주문식 주택이 바로 통나무 주택이다. 자연의 색과 자연의 디자인을 자체에 지닌 통나무 자재를 가지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강한 주택이면서 겨울난방, 여름냉방이 거의 완벽하며 안정성, 내구성, 편리성을 함께 지닌 환경모범생 건축으로 추천할 만한 장점이 수두룩하다.

※ 전화문의 : 무주 본사 (0657) 322 - 1988
서울 영업 본부 (02) 202 - 1691

자연과 조화된 건강 생활 문화 창조 『풀무원 식품』의 신경영 의지

풀무원식품(대표 : 南承祐)은 21세기 비전을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된 건강한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건강생활기업」으로 정하고, 新경영이념과 사원정신인 ‘풀무원인의 자세’를 제정·발표하였다.

풀무원은 혁신과 도약을 위한 新경영은 “인간은 물론 자연까지도 고객으로 생각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新경영이념을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고객기쁨경영”으로 정했다.

풀무원은 인간존중의 경영과 자연도 기쁨을 느끼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이 속에서 건강한 개인, 건강

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경영의 요체라는 생각에서 고객을 소비자와 내부직원으로 한정짓지 않고, 사회와 자연까지도 포괄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풀무원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증대’라는 창업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풀무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기뻐하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환경보전과 건강한 생활문화 창조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모아 “풀무원인의 선



충북 아산군 도안 농공단지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 GMP 공장

언”을 제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풀무원은 “99년 8,000억원 매출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식품중심의 사업을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자연과 조화된 건강한 생활문화를 창조한다는 기치아래 다양한 생활사업영역에도 진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풀무원은 ‘생지향식품사업’, ‘건강지향식품사업’, ‘자연지향생활사업’으로 미래의 3대 사업영역을 결정하고, 자연건강 생활기업이란 21세기 비전 실현을 위해 특히 자연지향생활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먼저 유기농산물을 필두로 풀무원의 이미지를 주요하게 형성시켜온 ‘생지향식품사업영역’은 기존의 두부류·장류·면류 중심의 사업에 전국적인 냉장유통시스템의 확대를 통하여 유통차별화를 강화 시켜냄과 동시에 첨단농업·음료 등의 신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건강지향식품사업영역’은 자체 신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기술도입을 통한 선진기술력 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건강보조식품사업과 생수사업등의 핵심사업들을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신규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지향생활사업영역’은 종합식품회사에서 자연건강생활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의 중심 사업영역으로서, 현재의 화장품사업과 생활용품사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자연과의 조화속에 인간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제조 및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풀무원은 기존 사업들을 확대강화하고 자연과 조화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신규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위의 3대 사업영역을 튼튼하게 묶어 세우기 위해 ①기술력 강화 ②물류지원 기반확립 ③정보시스템 구축 ④새로운 풀무원 이미지의 재창조 등 ‘4대기능강화전략’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술의 풀무원, 과학의 풀무원”이란 새로운 풀무원의 위상정립을 위해, 지난 '93년에 산학협동연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연세대학교에 40억원의 연구기금을 출연한 바 있는 풀무원은 연세대 내에 조성될 ‘산학연구단지’에 ‘풀무원기술연구소’를 확장·이전하여('96년 예정) 연세대 연구진과 함께 식품과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